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의 위력 내보여

'판소리다섯바탕'으로 모던한 공연예술을 연출 소리 스펙트럼 넓혀

우리 시대의 판소리는 무엇인가라는 명제 하에 치러진 2016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전통음악의 다양한 현대적 시도와 실험을 선보이며 이번 축제는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을 얻었다. 올해 소리축제는 '판소리다섯바탕'으로 모던한 공연예술을 연출함으로써 판소리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를 위해 모악당 공연무대에 객석과 무대를 나란히 올렸다. 공연은 판소리 무대를 사이에 두고 객석을 양쪽으로 배치하거나 미디어 장치를 활용하여 판소리무대의 원형에 대한 변화를 꾀했다.

또 판소리와 산조의 저변이 약한 현 상황을 반영해 관람석을 200석 규모로 대폭 줄이는 계획을 감행했다.

이러한 기획은 관객과 소리꾼이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무대공간을 창출하고 공연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연의 몰입

과 호흡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소리다섯바탕 런웨이' 무대에 오른 한 명장은 "무대가 열린 공간이라 관객이 공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지루함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며,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젊은판소리다섯바탕'이 벌어진 오송제 편백나무 숲도 소리와 더불어 풍류를 즐길 수 있어 관객들의 발길을 한동안 머물게 했다.

15개국 60여명의 연주자들이 다양한 악기와 함께 뿜어낸 '세상의 모든 소리' 개막공연은 개별국가 연주와 국가간 합작연주로 전개해 갔다.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장은 "이 무대는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무대를 꾸며, 소리축제에서 펼쳐질 각국의 개별공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연주자들과 함께 100여명의 어린이합창단이 폐창으로 부른 '아리랑과 새아

새아'에선 한국음악의 내면에 깃든 고유한 정서로 공연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연주팀의 공동연주로 이뤄진 한울 프로젝트 쇼팽&아리랑은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미국작곡가 험프리와 해금·대금·가야금의 콜라보 무대는 전통음악과 세계음악이 음악 매개로 소통하고 조율하며 진행되는 무대로 주목을 받았다.

소리축제 프로그램의 유일한 결합무대인 소리프론티어에서는 동방박사가 KB소리상(1등급)수상과 함께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재즈&월드뮤직 페스티벌 및 타이완 국립전통예술중심 TMF 진출권을 획득했다.

이들은 한국음악의 제한적인 음계를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 리듬과 사운드로 유일한 음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팀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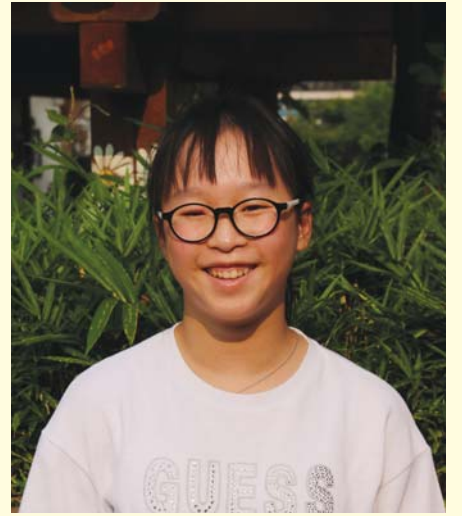
10월 첫째 주 개봉영화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여주는 여자>와 이외이 감독의 12년 만의 신작 <립반영클의 신부>를 6일 상영한다.

관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가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며 먹고 사는 소영이 사느라 힘들어 죽고 싶은 관객들을 진짜 죽여주게 되면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이다. 성과 죽음을 파는 여자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여배우들>, <두근두근 내 인생> 등을 연출한 이재용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윤여정이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40회 홍콩국제영화제 초청작이며, 제20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각본상, 여우주연상 수상작이다.

또 다른 한편은 <러브레터>, <하나와 엘리스> 등을 통해 독특한 화면 구성과 섬세한 감성을 보여준 이외이 감독의 신작 <립반영클의 신부>이다. <립반영클의 신부>는 SNS '블래닛'이 자신의 전부인 내내기가 '립반영클'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정체 모를 인물과 친구가 되며 진짜 세상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외이 감독이 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배우들의 열연과 일본의 사계가 담긴 아름다운 영상으로 가을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해은 기자



이경주 학생 대상 수상

대한민국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서

2016대한민국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에서 전주문학초등학교 이경주 학생(6학년)이 쓴 <이삿짐 트럭에 내 꿈을 싣고>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당선작은 익산시에서 전주시로 이사 온 주인공 경주가 전주에서 만난 학교와 친구들, 변화된 생활에 대한 실험과 자신의 꿈을 꼼꼼하고 발랄하게 적은 글이다.

훈불기남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 전북일보사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한 손글씨 공모전은 올해 전국 245개 학교에서 3,041명의 학생이 3,139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그 결과 이경주 학생이 대상을 이다현(화성금곡초 6년)·이윤서(전주송천초 2년)·임강이(신창초 2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10명, 장려상 40명, 가작 100명 등 모두 154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해은 기자

올 9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



군산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군산롯데시네마에서 펼쳐진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센터장 이승복)가 주관하는 제2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은파호수공원과 군산롯데시네마에서 펼쳐진다.

이번 영화제는 '세상을 바꾸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깊이 있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개막행사는 9일 오후 2시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목적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

은파호수공원과 롯데시네마서

막작 '영웅'가 상영되며, 10일 '천국의 속삭임' 등 5편, 11일 '우주의 닻' 등 6편, 12일 폐막작으로 '두근두근 안녕!' 등 4일간에 걸쳐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이승복 센터장은 "2회제를 맞아 올해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좀 더 내실 있는 작품으로 구성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관람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과 그들의 인권을 이해하고, 비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2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관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영화제는 전편 무료로 상영하며,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466-022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역세권 땅 투자, 돈이 보인다'

역세권 부동산 중요성 주목

역세권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투자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역세권 땅 투자, 돈이 보인다'는 역세권 부동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돈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도로를 만들거나 이를 따라가면 된다는 말과 상통한다. 실제 이런 사례는 많다. 도시지역 밖의 땅이었다가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건설되면서 그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주변 땅값이 수배에서 수십배 오른 경우가 그것이다." 상가와 유동 인구의 정도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상가나 주상복합건물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1차 역세권(역에서 500m), 도시개발단지 전체를 2차 역세권(역에서 1km)으로 본다. 어느 지역이든 적시에 투자한다면 기대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인기 싸움이다. 얼마나 좋은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전철역 주변이나 명문학교 인근, 학원 밀집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그만큼 투자에 유리하다.

토지 재화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7~10년 이상 묶여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몇 차례 단계를 밟아가며 땅값은 크게 오른다. 모든 땅값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를 곳만 오른다. 더군다나 크게 오르는 곳은 한정적이다. /뉴시스

'조선도공' 주제로 남원국제도에 캠프 개최

제5회 남원국제도에 캠프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 어현동 소재 춘향테마파크내 남원시민도에대학에서 조선도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작가 및 도예학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캠프는 외국작가 18명을 포함한 63명의 작가가 전개하는 기획초대전을 비롯하여 13명의 저명 초창작가가 진행하는 워크숍과 이론강의와 일본의 심수관가에서 파견한 전문기술자들의 제작가법 시연강의 등 다양한 도예전문 프로그램으로 치러지는데 전통가마 화원식과 함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 세계 도예문화의 추세를 이해하는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서남대학교가 주관하는 남원국제도에 캠프는 정유재판 도공의 후예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심수관가의 사사마 도자기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자기가 선보여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100여명에 이르는 남원시민 도예대학이 동참하여 조선 도자기 원류로서 남원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오고 있다.

도예캠프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서남대학교 김광길 도예학과 교수는 "캠프를 통해 정유재판때 풀려간 우리 선열들의 슬픈 역사를 되새기고 이를 남원 도예중흥의 발판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국의 도예인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0월 5일>

▷쥐띠
46년생: 기쁜일이 많으니 출타하면 이로운일이 가득하다.
60년생: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나 사람을 얻게 되는 운이다.
72년생: 타인에게 의지 하지 마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
61년생: 지나친 고집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73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청하라.
85년생: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호랑이띠
50년생: 크게 움직이면 손해가 발생하는 운.
62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친구나 동지끼리 다툼이 맞지 않다.

▷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

▷용띠
52년생: 잠시 놀만한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마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켜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9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헛사람의 도움에 따르는 운이니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

▷원숭이띠
5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69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쁜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1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3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

▷닭띠
57년생: 모욕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69년생: 헛사람의 덕이 충만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

▷개띠
49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61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된다.
73년생: 과도한 의무를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5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만한 일이 발생.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려라.
59년생: 문서에 감성이 따르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때.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마라.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지 큰것을 잃을 수 있다.